광산구 주민참여예산 배정 순위 주민투표 했더니…

주거환경 개선·미래세대 투자 우선

모바일·현장 투표 1063명 참여
가로등 정비 등 우수사업 선정
조정협의 뒤 내년 예산안 확정

광주 광산구민들이 주민참여예산 배정 순위를 묻는 현장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배정 순위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상반기 주민들이 제시한 26개 사업의 내년예산 배정 순위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광주시 5개구 자치구 가운데 처음 실시한 것으로,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올 상반기 지역 토론회를 비롯한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 인터넷 제안 등을 통해 111건을 접수받아 최종 26건을 '주민참여예산' 안건으로 취합했다.

광산구는 특히 이번 주민투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투표(광산엠보팅) 앱을 개설하고 현장투표와 병행했으며 638명은 모바일 투표에, 425명은 현장투표에 참여했다.

주민투표 결과 ▲가로등 조명시설 정비 ▲이주민 강사 활용한 학습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학생 직업 체험 활동 ▲도시공원 와이파이존 조성 ▲폐버스를 재활용한 어린이도서관 등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결산,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 제도를 강화해 자치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광산=최승렬기자 srchoi@

조선대병원, 광역치매센터 선정

내년부터 관리·연구사업 수행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광주시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돼 광주지역 주민에게 치매의 치료 및 예방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조선대병원은 시설, 인력, 연구 등 노인치매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아 이번 광주시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16년까지 센터 설치와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된 조선대병원은 8억1000만원의 설치비 포함 3년간 총 26억1000만원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치매관리사업 기획, 치매연구, 치매상담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지원, 자원조사 및 연계시스템 구축, 치매관련 교육,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등 광주지역 치매에 관련된 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광역치매센터를 선정해 왔으나, 광주지역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없어 적극적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센터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광주시 광역치매센터 선정으로 광주시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홍 조선대병원장은 "광주시는 현재 약 1만6000여명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연구결과 치매환자 수의 약 3배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광주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교육·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광주광역치매센터가 치매에 관한 통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 17일 다중 CCTV 모니터링시스템, 샤워시설, 치매환자의 낙상관련 골절 등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바닥과 벽면, 지남력 회복을 위한 자연채광시스템 등을 갖춘 치매전문병동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연구실 화재 대비 훈련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서부소방서(염주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연구실 화재사고 등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했다. 〈광주시 제공〉

'문화도시로 어떻게 지역경제 살릴까'

전남대 오늘 학술대회

전남대 코어사업단(단장 김양현, 철학과 교수)·유라시아연구소(소장 류재한, 불문과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문화경제학과 인문학'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한국문화경제학회와 전남대 코어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문화도시와 지역문화'를 주제로 3개 분과, 총 7개의 주제발표로 기획, 진행될 예정이다.

제 1분과에서는 ▲한류드라마 성공요인으로서 영웅서사의 현대적 변용과 세계적 변용(박경민·용인대) ▲부산 국제영화제의 사례로 본 국제영화제와 지역간 협력의 긍정적 효과(김지영·브리스톨대) ▲영국 리버풀의 문화정책을 통한 도시재생의 효과와 그 의미(김정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제 2분과는 ▲글로컬라이제이션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발전방향(이병민·건국대) ▲세계 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방향과 역할(안재연·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 ▲문화도시의 논리적 토대로서 인문적 사유(류재한·전남대) ▲로컬 콘텐츠 수급과 혼합경제발전(심상민·성신여대) ▲정치적 성향과 문화적 취향의 상관관계 분석(박근영·연세대) 등의 주제발표로 채워진다.

제 3분과는 융복합 공공문화예술기관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이수희(영국 켄트대) 교수 등에 의해 진행된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진정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신청 시·도민 서명, 내달 유네스코 전달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출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시·도민의 굳은 의지를 담은 서명을 유네스코에 전달키로 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숲과 증심사지구, 원효사지구, 호수생태원 등 지질공원탐방안내센터 3곳, 화순 운주사, 고인돌공원 등에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범 시·도민 서명운동'을 일제히 열고 있다.

서명 부스에는 지질공원해설사를 배치해 무등산권지질공원 홍보와 시민 이해를 돕고, 지질공원탐방안내센터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무등산권 지질교육 실시하고 있다.

서명지는 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시·도민의 열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오는 11월 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에 첨부해 유네스코로 보낼 계획이다.

한편,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10월7일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11월말까지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로 제출하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세계질공원으로 인증 받고자하는 시·도민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올해 3월15일 대한지질학회(학회장 허민 전남대교수)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지질과학연맹 사무총장 마르코 코맥, 부회장 요세 칼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총장 패트릭 맥키버 등이 참여한 두차례 예비실사를 통해 무등산권 지질학적 가치를 평가받았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은 광주시 동구와 북구, 화순군과 담양군에 걸쳐 246㎢으로, 세계적인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무등산의 입석대, 서석대 등 주상절리대, 화순 고인돌 유적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등 지질명소 23곳과 무진고성, 환벽당, 국립5·18민주묘지 등 역사문화명소 22곳이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39명 6일간 봉사

홍수 피해 구호 활동

광주시가 지원하고 ㈔희망나무가 건립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최근 홍수 피해가 발생한 캄퐁스퓨 주(州)에서 의료봉사 활동과 연계해 구호활동을 펼친다.

이번 구호활동은 지난 2014년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소 후 22번째 봉사활동이며, 27일부터 6일간 ㈔희망나무, JB금융 봉사단원,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 등 총 39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식수, 라면, 헌옷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인근 학교를 찾아 컴퓨터를 기증하고 벽화 작업, 마을 방역 등 교육·환경·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나눔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지난 21일 광주시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체결한 '해외재해 긴급구호활동 지원' 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서 구호물품 운송을 지원했다.

한편, 광주진료소가 위치한 캄퐁스퓨 주(州)는 폭우로 인해 댐이 무너지고 건물이 침수돼 1000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관내 봉사단체들과 손잡고 아시아의 아픔을 보듬어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전파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경기도 인천 오피스텔 분양
인천 호구포역 1분
임대 걱정없음 / 실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매가 1억 1천 → 대출8천 → 임대 보1천/월50만
▶ 실투자 500만 → 오피스텔 1채
경기도 화성 A.P.T 화성 시청 2분
분양전환
화성 시청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남양뉴타운 개발도시
▶ 1천만 투자 → 34평 아파트 1채
010-7384-7800 010-6670-9800

첨단 8층 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토 500평, 건 904평
(연구실, 본사건물, 경영컨설팅 사무실 최적합)
최고급 시설 / 주차 완비(60대)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 대 출 27억 가능
월수익 3천 보 6억
▶ 실투자 5억
1층 (상가) 120평 (식당 입점준비)
2층~7층 (룸 56개) 오피스텔 및 사무실
8층 (41평) (고급룸 2개 스카이라운지) 전망최고
010-7384-7800 010-6670-9800

동구 수기동 사무실 임대 6층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6층
45평
천변로 전망좋음 (약 4평 저온찜질방)
사무실 최적합 / 주차 완비 / 즉시 입주
▶ 보 2천 월 60만
첨단 사무실 임대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1층) 사무실 임대
북구 우산동
구호전 / 안보회관 사거리
시설완비 / 즉시입주 / 위치 최고
▶ 보 1천 월 50만
010-6834-4800 010-6832-9700